

9박10일 미술세계에 푹~ 빠지다



황재형 작가

광주 증심사 자락 해외예술공간서
광부화가 황재형과 함께하는 캠프
중학생서 대학교수까지 30명 참가

“10일 동안 미술만 생각할 거예요.”
지난 29일 오후 찾은 무등산 증심사
자락에 있는 해외문화예술공간은 미술
을 배우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
였다. 30명의 시민들은 ‘광부화가’로 불
리는 민중미술화가 황재형 작가와 함
께 크레파스를 이용해 하얀 사절지에
색을 칠하고 있었다.

사절지를 16개로 나눈 시민들은 때로
는 거칠게 칠하고, 때로는 덧칠하는 등
다양한 방법으로 색과 크레파스가 가진
질감을 표현하느라 바빴다. 표면을 연
필이나 라이터로 긁어 다양하게 질감을
연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.

황 작가는 참가들을 둘러보면서 “패
턴이 너무 일정하면 무늬처럼 돼버려
요.” “재료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
해요.” “생각했던 것을 최대한 표현해
보려고 해보세요.” 등 조언을 아끼지 않
았다. 직접 나이프를 들고 다양한 형태
의 질감을 표현해주시기도 했고, 휴지로
칠해진 부분을 문질러 파스텔 느낌을
연출해주시기도 했다.

이날 수업은 태백미술연구소와 해외
문화예술공간이 마련한 해외자유예술
캠프 프로그램 중 하나다. 황 작가와 태
백미술연구소 연구원 8명은 지난 28일
부터 오는 8월6일까지 9박10일 일정
으로 ‘황재형 회화의 조건-복제’를 주제
로 캠프 참여자들과 미술에 대한 수업
을 진행한다.

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

오전에는 미술 이론과 철학 등을 배우
고 오후에는 배운 것들을 실습한다. 회,
구도, 형태, 색 등 기본적인 이론은 물
론 물감과 먹,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
이용해 배운 것들을 실습해본다.

이번 캠프는 팜푸리성장학교를 운영
하는 김석재 양지병원 대표원장과 박구
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, 광장음악회 기

점 찍어 선 만들고
선을 모아 면으로...
비스킷·아이스크림 먹고
맛과 향 그림으로 연출...

획자 한유진씨가 기획했다. 평소 황 작
가의 작품에 관심이 많았던 김 원장 등
은 올 초 그를 만나기 위해 직접 태백으
로 찾아갔다. 거기에서 황 작가가 전국
교사들을 대상으로 ‘누구나 누릴 수 있
는 미술교육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.
그리고 보성이 교향인 황 작가가 “고향
에서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”고 말을 꺼
냈다. 황 작가와 연구원들은 모두 재능
기부로 이번 캠프에 참여했다.

단순히 미술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
다. 회화 교육을 받았는지도 중요하지
않다. 평소 몰랐던 미술을 배우고, 그림
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해보자는 취지다.
또 서로 잡다한 그림이 무엇인지 등을
생각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.

30명의 참가자가 이틀 만에 모였다. 중

학교 1학년 학생부터 주부, 대학원생, 미
술을 공부하는 학생, 대학 교수, 미술 교
사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참가했다.

크레파스로 칠한 부분을 연필로 긁으
면서 곡선을 연출하고 있던 광주대 박주
희 교수는 “아곳에서 이번 여름을 온전
히 미술에 쏟아붓고 싶었다”고 말했다.

첫날 참가자들은 그림의 가장 기본이
되는 점에 대해 배웠다. 직접 점을 확장
시켜 선을 만들고, 선과 점을 모아 면을
만들었다. 이날은 그 면에 색을 입히는
시간이었다. 또 비스킷, 초콜릿, 아이스
크림 등을 직접 먹고 맛과 냄새를 그림
으로 연출하기도 했다.

전남대 대학원에서 예술철학을 공부
하고 있는 임명규(33)씨는 “초등학교 이
후로 크레파스도, 색종이도 처음이었
다”며 “점 하나를 찍고, 색을 정하고, 또
그 점들을 집합시키고, 흠여지게 하는
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다”고 말했다.

참가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공다희
(여·14·문흥중)양은 “가장 좋아하는
색으로 질감을 표현하고 있다”며 “구체
적으로 꿈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
미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번
캠프에 참여하게 됐다”고 밝혔다.

황 작가는 “톨스토이는 ‘예술은 삶을
풍족하게 한다’고 했다”며 “예술의 신
비화와 독점화를 지워버리고 누구나 예
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
싶었다”고 전했다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

보성 출신 ‘광부화가’ 황재형 작가가 지난 28일부터 9박10일 일정으로 해외문화예술공간에서 열리고 있는 해외자유예술캠프 참가자들에게 그림의 질감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

유리건판 사진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

나주박물관 8월17일까지
송광사·쌍봉사 등 전시



순천 송광사 우화각



화순 쌍봉사 대웅전

국립나주박물관(관장 박중환)은 8월
17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‘유리건판 사
찰으로 보는 남도 사찰의 옛 모습’전을
연다. 유리건판 사진은 필름이 보급되기
전에 사용된 사진 기술로, 이번 전시에는
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고 있는 유리
건판 사진이 선보인다.

전남은 불교 부흥이 시작된 곳이다. 통
일신라시대와 고려시대의 불교를 이끌
었던 5교9산 중 선종의 가지산문(장흥 보
림사), 동리산문(곡성 대안사) 등이 전남
에 자리해 불교진흥에 앞장섰다. 이 시기
석조문화재들은 지금도 남아 있다.

고려 중기 이후에는 조계종이 순천 송
광사를 근본도장으로 해 크게 일어나고,
천태종이 강진 백련사를 중심으로 백련
결사운동을 전개하는 등 불교 중흥에 앞
장섰다. 현재도 조계종의 25교구 본사 중
5개가 전남에 자리하고 있다.

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사진 중에
는 1910~1936년에 걸쳐 전남 지역에서
조사했던 사찰과 문화재들의 자료가 남
아 있다. 송광사, 화엄사, 선암사, 백양
사, 대흥사와 같은 주요사찰의 건축물과
석조문화재는 물론, 도갑사, 불갑사, 쌍
봉사, 보림사, 운주사와 같은 작은 사찰
의 문화재도 꼼꼼하게 사진으로 기록돼
있다.

또 초기집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사찰
과, 사찰에 기대어 살아가던 사람들의 질
박한 삶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. 지금은
소실되어 남아있지 않은 문화재의 모습
도 살펴볼 수 있다. 문의 061-330-7800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삼베이야기와 천 짜기 체험

국립광주박물관 8월 6~20일 매주 수요일

국립광주박물관(관장 조현중)은 여름방학을 맞아 ‘여름! 박
물관 이야기-우리나라 최초 직물 삼베이야기와 천 짜기 체험’
프로그램을 운영한다.

8월6일부터 8월2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~5시에 3차례
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신창동에서 발굴된 최초의 직
물 삼베에 대한 스토리텔링과 천 짜기 체험학습을 통해 지역과
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는다.

국립광주박물관은 신창동 유적지 발굴조사를 통해 2000년
전 만들어진 직물과 실감개, 뼈바늘, 가락바퀴 등 천 짜는 도구
를 발견했다. 당시 삼한에서는 양잠을 해서 면포(綿布) 등과 같
은 견직물을 생산했다는 기록이 있다.

8월 6, 13, 20일에 미니베틀로 직접 천을 짜보는 시간을 갖는
다. 신청은 홈페이지(http : //gwangju.museum.go.kr)로 하
면 된다. 문의 062-570-7053.

/김경인기자 kki@kwangju.co.kr

광주성악콩쿠르

8월 9~30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등

전국 성악인 등용문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주성악콩쿠르가
오는 8월 9일부터 30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와 빛고을시민
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.

광주문화재단은 만 20세이상 34세 이하 내국인을 대상으로
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으며, 8월 9일부터 23일까지 1·2차 예전
을 거쳐 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본선 경연을 개최할 예정
이다.

본선 1등 수상자에 1500만원, 2등 700만원, 3등 300만원 등
총 3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. 최고 입상자에게는 오는 10월
열리는 ‘페스티벌 오광주 정율성 축제’ 오프닝 무대에서 광주
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 기회가 주어진다.

특히 올해 공연부터는 본선 1~3위 입상자에게 밀라노국립
음악원 무시험 입학과 이탈리아 마리아 말리브란 국제성악
쿠르 1차 예선 면제 특전이 주어진다. 문의 062-670-7465.

/이보람기자 boram@kwangju.co.kr

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!

●홍보지 및 판촉물

●전단지

●현수막

●상패

●상패

●전단지

●각종 인쇄물

●현수막

●각종 인쇄물

●홍보지 및 판촉물



왕인문화기획

Tel. (061)471-1717~1718
Fax. (061)471-1719
E-mail. ansqudtjs12@hanmail.net

